



한달 남은 수능... 어머니의 기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7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8일 광주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한 학부모가 이른 아침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불공을 드리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군 인구 전남 군단위 1위 등극

남악신도시 효과로 전남 유일 5년간 꾸준한 증가... 해남군 제쳐

전남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활성화 효과로 무안군 인구가 전남도내 군(郡)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9년 무안군 개청이후 처음으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내 군 단위 인구 1위는 해남이나 고흥이 차지해왔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인구는 7만8530명으로 그 동안 1위였던 해남군 7만7742명보다 788명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고흥이 7만745명, 화순 6만8058명, 영암 5만9373명 순이다.

무안지역 인구 증가는 전남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남악신도시 아파트 신축이 활기를 띠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악신도시가 조성된 삼향읍은 2005년 말 7700여명에서 지난해 말 2만600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곳은 군 단위에서 무안이 유일하다.

시 지역은 광양과 순천이 소폭 늘었다.

무안지역의 최근 3년간 인구 수는 2010년 7만4475명, 2011년 7만5718명, 지난해 7만574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0년을 전후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구 10만명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남악신도시 도시인프라 확충은 물론 군 전반적인 문화, 환경, 교육 등 정주조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경선 좌우... 민주 당원 모집 전쟁

지방선거 '광역의원 100% 경선' 틀 개정
광주·전남 당비내는 권리당원 2배 늘어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민주당원 모집 경쟁으로 뜨겁다.

내년 6월4일 치러질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 사람 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권리당원 숫자가 최근 2배로 늘었다.

특히 100% 당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광역의원들과 광역의원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은 사실상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아직 전산 입력작업을 마치지 못한 당원 모집 서류만 1만여장이 쌓여있을 정도다.

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

활한 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30만명이던 당원 수는 지난 8월 말 31만명으로, 1만명이 증가했다.

3만3000명이던 권리당원도 4만8000명으로, 1만5000명이 증가해 권리당원 증가 숫자가 당원을 추월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기존 일반 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단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남지역 당원 숫자는 아직 9월분 집계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도당 사무실에만 5000~6000장의 신규 입당원서가 쌓여 전산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3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최근 당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표방,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추

진하면서 경선에서 선거인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당비 납부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 탓이다.

내년 6월4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 4~5월께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달 말 입당자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은 남은 3주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광역의원 입지자는 "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100% 당원 중심으로 선출기 때문에 선거인단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 모집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적지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상향식개혁공천위원회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당원 50%+여론조사 50%'로 치르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1일~31일 광주·전남 15개 기관 국감

여야가 2013년 국정감사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올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3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전라남도, 오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 광주·전남 국정 감사 일정

날짜	피감 기관	장소	상임위원회
10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노동위
10월 22일	한빛원전(영광원전)	한빛원전(영광원전)	산업통상자원위
10월 23일	광주 고·지법, 광주 고·지검, 가정법원	광주지법, 광주지검	법제사법위원회
10월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도교육청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0월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지방노동청, 부산항만공사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0월 28일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	안전행정부위원회
10월 31일	전남도	전남도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오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하기로 예고했다. 또 28일에는 국회에서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광주 고법·지법·가정법원, 광주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다른 지방환경청을 포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으며 25일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른 지방노동청과 함께 대구지방노동청에서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1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2일 영광 한빛원전 현장시찰을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hwangchilnara.kr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현역력 이보다더 좋을 순 없는데...







■ 상촌점 광주 서구 상촌동 948-33 062-375-8233
■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 여수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나라(주)
전남 정동진 정동읍 해미리 69-3